



제목	역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도서출판 숲
발행일	2009. 2. 10.
저자	헤로도토스 천병희 옮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994
ISBN 또는 ISSN	978-8991290266

내용 요약

이 책의 주인공은 그리스인과 이방인인 페르시아인이고, 주제는 이들이 싸운 페르시아 전쟁이다. 서술 시기는 페르시아를 강국으로 만든 기원전 559년 퀴로스의 치세부터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가 세스토스에서 패배한 시기까지 80년의 기록이다. 총 9권 중 1권에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이방인의 대립이 리디아의 왕 기게스부터 시작했다고 전한다. 2권에서는 퀴로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이집트 정복에 나서기 이전 이집트의 지형, 기후, 나일강의 범람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3권에서는 캄비세스 치세에 이집트 정복, 에티오피아 원정, 캄비세스의 악업과 사망, 다레이오스의 즉위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46권은 다레이오스의 바빌론 재정복, 스키타이 원정, 리비아와 트라키아 정복, 이오니아 밀레토스의 반란과 진압, 마르도니오스와 다티스의 그리스 원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6권에서는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아토스 반도에서의 폭풍으로 무산된 사건, 7권에서는 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테네 밀티아데스가 적은 병력으로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 승리한 마라톤 전투가 기록되었다. 7-9권은 다레이오스의 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가 부왕의 복수를 위해 일으킨 3차 페르시아 전쟁을 담고 있다.

헤로도토스가 밝혀낸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오만과 신의 징벌이었다. 밀레토스의 반란을 도와주었던 아테네에 대한 페르시아의 복수와 야심, 대군을 믿고 승리를 장담했던 페르시아 왕의 오만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공격하여 태양이 비치는 모든 곳을 손에 넣으려는 욕심과 자만심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